

보도시점 (지 면) 4. 4.(목) 조간  
(인터넷) 4. 3.(수) 12:00

## 3월 미리 온(ON) 동행축제, 5월 본축제 흥행을 위한 마중물 톡톡

- 온라인 608억원, 오프라인 23억원 등 631억원 기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초봄 시즌을 맞이하여 3월 한 달간 진행한 미리 온(ON) 동행축제가 총 631억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부 매출로는 11번가, 위메프, 네이버쇼핑, 공영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배달의민족\* 등 35개 온라인 채널(608억원)과 행복한백화점 특가기획전, 판판면세점(3곳) 등 오프라인 채널(23억원)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

\* 미리 온(ON) 동행축제 연계 '12개 중소 치킨브랜드 할인 이벤트(3.11~3.17)'로 약 9억원의 판매 실적 기록

미리 온(ON) 동행축제는 '5월 동행축제'에 앞서 개최한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입학 등 새 출발이 주로 시작되는 초봄 시즌을 겨냥한 '신학기 준비', '봄맞이 대청소 및 집 꾸미기' 등을 주요 방향(컨셉)으로 기획하였으며, 총 39개 채널들을 통해 1,700여개의 중소·소상공인 제품들이 참여했다.

구체적인 매출 발생사례를 살펴보면,

① 자체 제작한 천연 진주 은목걸이를 판매하는 로스도스는 패션 카테고리 집중판매몰(버티컬커머스)인 지그재그 플랫폼 내 상품권(쿠폰)할인 등을 통해 매출 3,500만원을 기록, 전월 대비 210% 증가하였고,



② 피부상처 및 흉터치료 제품인 (주)제이엘앤은 티몬에서 진행한 비(非)식품 딜 특가로 일 매출 870만원을 달성하는 등 참여기간 동안 온라인 기획전에서만 1,6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③ 최신 도정 설비를 활용해 ‘23년산 햅쌀을 판매한 (주)푸드조아는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하여 1시간 단독 방송으로 매출 1억1백만원을 달성하였다.

로스도스의 이보미 대표는 “미리 온(ON) 동행축제에 참여하면서 제품 판매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며, “기회가 된다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도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매출액을 달성했다”며, “다가오는 5월 동행축제(5.1~5.28)가 미리 온(ON)의 열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지난 3월 26일(화)에 접수마감한 5월 동행축제 참여기업 공개모집(200개사) 결과 총 956개사가 몰려 4.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되고 있다.

담당 부서	내수활성화추진단	책임자	과 장	이정훈 (044-204-7240)
		담당자	사무관	박정은 (044-204-7266)
	소상공인정책관 디지털소상공인과	책임자	과 장	김민지 (044-204-7720)
		담당자	사무관	이상우 (044-204-728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